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업종별 특집은

완성차 수출 아쉽지만 車부품 최대 수혜

추가 개방 막은 축산업계 '안도'

IT·전자 "별 영향없다" 시큰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되면서 산업계는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분하다.

이번 협상이 '자동차 대신 농산물을 쟁겠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자동차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일 산업계와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추가협상 타결로 최대 수혜를 보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을 꼽았다. 당초 합의대로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가 관찰됐기 때문이다.

부품업계는 미국 수출이 늘고, 한

국 부품을 쓰는 국내 한국 자동차 공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들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업체들의 레브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이번 4% 관세 인하 효과로 대미수출 물량이 약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완성차업체 역시 3년 후 폐지하기로 했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2.5%의 관세 철폐 시한이 4년후로 연장된 것은 아쉽지만, 낙담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번

타결로 최대 시장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한국 자동차의 판매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7년 폐기됐던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부활된 점도 아쉽지만 현대·기아차 등이 이미 미국 현지에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쇠고기의 주가 개방을 막아내고, 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대한양돈협회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냉동목살에 대해 관세폐지 시한을 2년간 연장한 것은 양돈농가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섬유업계는 관세철폐 덕에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향후 대미 섬유수출이 연간 1억8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운송·항공·해운업계 역시 긍정적인 전망했다. 양국간 교역 확대로 인한 전반적인 시장 확대 덕에 수요가 증가하고 여행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IT·전자업계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출관세가 크지 않은데다 주요 업체들은 이미 많은 물량을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NAFTA) 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간다. /박정국기자 jwpark@kwangju.co.kr

"불확실성 해소...對美수출 확대"

전경련 등 경제계 FTA 추가협상 타결 환영

"자동차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될 것"

경제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對美)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추가 협상 타결은 그동안 미국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없애고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대미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번 협상타결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미수출 자동차 부품 관세가 즉시 철폐돼 자동차 부품수출 증

소기업과 한국산 부품조달 비중이 높은 미국 현지공장의 경쟁력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지난 3년 반 동안 비준이 지연돼온 한·미 FTA가 마침내 양국 간 추가협상 타결로 행정현안들을 모두 해소하

지 않은 수준이라고 본다"면서 "그 대신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우리 측의 이익을 반영한 데다 쇠고기 분야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아 이의 균형을 적절히 이뤘다고 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북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등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돼 한·미 동맹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양국의 경제적 이익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국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신세계 올 총매출 5000억 돌파

15년만에 역대 최고

광주신세계백화점 을 11월까지 총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백화점 전국 점포별 매출 순위 12위를 기록해 10위권 진입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백화점 점포별 매출 순위를 살펴본 결과 광주신세계백화점의 총매출은 5039억원으로 매출

순위 12위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위치한 백화점 중에서는 롯데백화점 부산점(4위·7450억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10위·5754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순위다.

특히 광주신세계백화점의 총매출액은 지난 2007년 3686억원, 2008년 3827억원, 지난해 3991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1층 광장에서 주말마다 여는 문화공연을 비롯해 금호 유스퀘어 문화관과 연계한 문화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분기별로 한 차례씩 개최했던 VIP 고객 초대회를 두 달에 한번 꿀로 늘린 것도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백화점 중 매출 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매출 1조 405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신세계 강남점(매출 9580억

원)을 2위를 차지했으며, 롯데 부산점(7500억원)이, 5위는 현대 무역센터(7억15억원), 6위에는 신세계 본점(6850억원)이 올랐다.

현대 압구정 본점과 현대 목동점도 매출이 각각 6370억원, 6314억원을 올려 신세계 본점의 6위 자리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장하면서 '세계 최대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는 9위에 올라섰으며 신세계 인천점은 2년 만에 2단계나 내려앉아 10위를 차지했다.

광주지점은 현대 차그룹 거점인



기아차, X-마스 카메라 쓴다

기아자동차는 크리스마스(12월25일)에 눈이 내리면 최신형 삼성 카메라(NX100)를 증정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쏘울을 구입한 개인 고객 전원이다.

〈기아차 제공〉

한국, 향후 5년간 성장률 최고

평균 GDP 4.3% 증가... OECD 회원국 중 1위

고령화·저출산 영향 2016년부턴 급락 가능성

(3.6%), 슬로바키아(3.3%), 호주(3.2%)가 뒤를 이을 것으로 추산됐다.

명목 GDP 대비 총금융부채 또한 한국은 2025년에 5%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금융부문이 건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0~2015년 평균 잠재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도 한국은 3.2%로 슬로바키아(3.6%), 체코(3.3%)에 이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418회)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숫자				
11	13	15	26	28	34	3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435,649,766	8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1,613,037	46			
3	5개 숫자 일치	1,454,560	1,316			
4	4개 숫자 일치	50,000	61,748			
5	3개 숫자 일치	5,000	1,025,606			

코스피지수	
▲ 1,957.26 (+7.00)	
코스닥지수	
▼ 502.13 (-3.81)	
금리 (국고채 3년)	
▲ 3.12% (+0.02)	
원·달러 환율	
▲ 1,138.50원 (+10.80)	

※수치는 3일 기준 1주전과 비교

2010년 국가직/ 지방직 수탁출제에 따른 수험전략/ 채용인원현황/ 바뀌는 시험정보/ 조기합격을 위한 수험대책/ 국가직, 지방직 시험일정 및 거주지 요건정리

공무원 합격설명회

2010년 12월 27일(월) 14:30~ (사전예약접수 중)

참석자 전원 최근 5년간 기출문제증정/ 고급노트증정 종합반교재 5권 20만원상당 무료추첨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타 학원 공무원 합격설명회 다 들어보시고, 학원선택은 반드시 비교후 소문들고 선택하십시오! 고시학원의 대세는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직/ 교육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합격은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한빛 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웹사이트 김영편입학원 227-8088

개강
1월
3일